

벽돌처럼 묶이고 지게차로 들어올려진 이주노동자! 나주 벽돌공장 스리랑카 노동자 인권유린 사건을 강력히 규탄한다.

전라남도 나주시에 위치한 한 벽돌공장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겼다. 7월 15일, 스리랑카 출신의 이주노동자가 벽돌에 비닐 테이프로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올려지는 인권유린의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의 폭력과 모욕의 장면이 영상으로 공개되었고, 사람들은 말을 잊지 못했다. 장난이라는 말로, 별척이라는 말로도 용인될 수 없는 일이, 일터에서 사람에게, 노동자에게, 이주노동자에게 자행된 것이다.

스리랑카에서 일터를 찾아, 한국으로 입국한 1994년생의 청년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오늘, 7월 24일은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청년노동자의 생일이다. 그러나 그는 기쁨과 축하가 아닌, 폭력과 공포 속 하루를 보내고 있다. 미래를 위해 한국을 찾은 한 명의 노동자가 겪고 있는, 이 끔찍한 인권유린은 단지 ‘우발적 일탈’이 아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 뿌리내린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폭력의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다. 함께 일하는 노동자가 아닌 기계처럼, 우리 곁의 이웃이 아닌 동물처럼, 이주노동자를 인식하는 문제가 이번 참상으로 드러난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은 나주지역의, 단지 한 공장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이미 영암군 돼지 축사에서 자살한 네팔 청년 노동자, 완도군 계절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의 부당해고 사례 등 수많은 경고를 마주해왔다. 그럼에도 제도는 바뀌지 않았다. 전라남도, 노동부, 법무부는 임시방편 대책만 반복할 뿐이었다. 이주인권 단체와의 협력은 더딜 뿐, 중장기 대책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주노동자의 고통은 행정관료의 서류 속에서 차갑게 잊혀지고 있다.

우리는 반복되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유린, 인권침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나주 벽돌공장 인권유린으로 충격받은 피해 노동자의 정신적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지자체와 노동청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심리·법률·의료적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한다.

이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왜, 피해자가 인권유린을 당했는

지” 철저하게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또한 가해자들은 엄중히 처벌받아야 하며, 사업주의 방조 또는 책임 여부 역시 조사돼야 한다. 이번 사건을 일회성 사건으로 예단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을 심층면담해 그들이 겪는 고통과 구조적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또한 나주시와 노동부는 관내 농공단지 및 계절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하여 열악한 환경에 처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라남도 각 시군으로 실태조사를 확대하여 지역 전체 이주노동자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단순히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규율, 통제, 감시하고 단속 및 추방하려는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반인권적 처사와 반노동적 행태로 고통받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위험의 이주화 중단,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노동허가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

오늘, 불안 속에서 생일을 맞은 피해 청년 노동자를 비롯해 이 땅의 모든 이주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더 이상 이주노동자가 차별과 폭력에 시달리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주노동자가 기계도, 짐승도 아닌 ‘사람’으로 존중받는 사회, 그 최소한의 정의와 존엄이 회복되는 날까지, 우리는 결코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년 7월 24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